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4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음 1월 4일) 제17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이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익산역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을 남아있는 가족이 배웅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내달부터 '금연구역'

전주시보건소, 경계 30미터 이내

2월 1일부터 전주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다.

전주시보건소는 아동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지역 어린이집 678곳과 유치원 125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오는 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에 앞서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

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두고 금연 캠페인과 홍보 현수막,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인 오는 5월 1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도내 마을세무사

'세금고민 해결사'

지나해 6개월동안 도내 653건 해결

도내 전통신장 상인 A씨는 가계 영업에 필요한 화물트럭 구입과 관련해 마을세무사와 상담했다.

마을세무사는 A씨가 18세 이하 자녀가 3명임을 확인하고 다자녀 감면 차액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도움을 받았다.

대도시에서 사업실패 후 귀촌한 귀농인 B씨는 마을세무사 상담을 통해 대도시의 주택 매도 관련 국세(양도소득세)는 물론 귀농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가 지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아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다양한 세금고민을 해결하면서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도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도내에는 76명의 마을세

무사가 14개 전 시·군에 배치돼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653건의 세무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496건(76%)이었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65건(10%)이며 국세와 지방세 동시 상담은 92건(14%)로 나타났다.

상담 방법은 대부분 전화를 통한 상담건수가 493건(75.5%)이고, 방문상담은 154건(23.6%), 기타 메일과 팩스를 이용한 상담은 6건(0.9%)으로 상담을 해결했다.

이러한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시·군별로 위치한 마을세무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김상호 도 행정과장은 "올해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 받아 권익을 보장받고 역활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농업용 로봇 영농현장 투입 박차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지역의 농업용 로봇 제품을 시장 수요자를 대상으로 검증하고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이반 테스트베드 구축은 지난해 선정된 지자체참여형 정부과제인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또한 국비 6.5억과 도비 1억의 출연금이 지원돼 '농업용 방제드론'과 'TMR사료 급이로봇'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수요자의 현장의견을 반영한 로봇 성능의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농업용 방제드론'의 경우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고산농협, 금안농협 및 정읍농협에 테스트베드가 구축됐으며, TMR사료 급이로봇의 경우 익산풀한우영농조합법인(김제), 푸른청맥한우영농조합법인(김제), 수환이네 농장(정읍), 동리북장(완주)과 풍촌목장(고창)

방제드론·TMR사료 급이로봇 사업화 촉진 위해 실수요자 현장의견 반영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에 테스트베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는 구축되는 테스트베드를 통해 농업용 로봇을 필요로 하는 수요농가에서 직접 로봇을 이용해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맞춤형 농업용 로봇으로 상품성을 한 단계 향상 시킬으로써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매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상기 2종의 농업용 로봇의 보급확산을 위해 도내 수요농가의 접점 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농협에 적극 홍보하고 국내의 전시회 등 홍보 사이트 운영을 통한 국내 수요 및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해에

서 개최되는 '제18회 중국 국제 농기자재 및 작물보호 박람회'에 상기 2종의 농업용 로봇을 전시 홍보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대외 인지도 향상 및 해외 바이어 연결을 통한 해외 수출의 판로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용 방제드론'의 제조사인 메타로보틱스(주)는 지난해 전국에 대리점들을 개소하면서 1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메타로보틱스는 올해에도 중소형 농업용 드론을 포함한 100여대의 선주문으로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TMR사료 급이로봇'의 제조사인 (주)다운의 경우도 보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미 2015년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으로 도내 농가에 '무인자율주행트랙터', '시설화훼 자율운송로봇', '반자동방제로봇' 3종의 농업용 로봇을 보급한바 있으며, 해당 로봇기업에서 5.5억원의 매출 성과가 있었다.

전북도 담당자는 "농업용 로봇 보급의 활성화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국간의 FTA체결 및 농가 농업 생산 인구의 감소에 따른 국가 농업 경쟁력 약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생산량 증대 및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로 국내 농업 생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농가에 농업용 로봇의 보급을 통해 인체에 유해하거나 고역의 농작업을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농촌 일손 해결과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농업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전북도가 세계 농업용 로봇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재용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마,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9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